

폭염 ... 소나기 ... 예측 불허 올 여름

광주 'MB물가' 무섭게 올랐다

〈정부 집중관리 생필품 물가〉

43개 생필품 중 23개 품목 상승 삼겹살 석달만에 44.7% 치솟아

광주지역의 43개 생필품 가운데 절반 이상의 품목이 크게 올라 서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중 관리하겠다고던 52개의 생필품, 이른바 'MB물가' 가운데 4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3개 품목이 상승했다. 특히 돼지고기, 등유 등 일부 품목은 최근 3개월 새에 무려 40%대까지 치솟아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6월 'MB물가' 중 상승한 품목은 23개 품목에 달했으며, 이중 19개 품목은 같은 기간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1.75%(추정치)를 웃돌아 정부가 'MB물가' 관리에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포함세는 8개 품목, 내린 품목은 1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가격이 오른 품목은 쌀을

비롯해 밀가루·두부·돼지고기·고등어·달걀·스낵과자·고추장·LPG·도시가스·등유·세제·외래진료비·휘발유·경유·납입금·학원비·자장면·이미용료·목욕료·화장지·삼푸 등이다.

최근 임시국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자가격을 물라 화제가 됐던 돼지고기(삼겹살·500g)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와 AI로 인한 닭고기 대체육으로 각광받으면서 지난 3월에 비해 6월 44.7%까지 크게 올랐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줄이는 바람에 가격 상승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또 등유(45.3%), 휘발유(12.4%), 경유(26.1%), LPG(10.2%), 도시가스(3.8%) 값을 밀어올렸고 목욕료(7.2%), 이미용료(4.0%)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3개월 'MB물가' 상승품목별 상승률 (단위: %)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75%)

상승률	품목
1.75% 이상 상승 (19개 품목)	쌀(3.1), 밀가루(16.1), 두부(6.6), 돼지고기(44.7), 고등어(11.3), 달걀(2.6), 고추장(2.4), LPG(10.2), 도시가스(3.8), 등유(45.3), 세제(14.7), 외래진료비(3.2), 휘발유(12.4), 경유(26.1), 자장면(2.7), 이미용료(3.25), 목욕료(7.2), 화장지(21.4)
0.1~1.75% 상승 (4개 품목)	납입금(1.3), 학원비(0.9), 삼푸(0.6), 스낵과자(0.03)



(자료: 통계청)

이와 함께 국제 곡물가의 고공행진은 쌀(3.1%), 밀가루(16.1%), 두부(6.6%), 고추장(2.4%), 자장면(2.7%) 등의 소비자가격을 끌어 올렸다.

주부 K씨(44·광주지 북구 두암동)는 "생필품 가운데 채소값 외에 내린 품목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10만원을 들고 할인점에 가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밖에 물건을 살 수 없다"고 푸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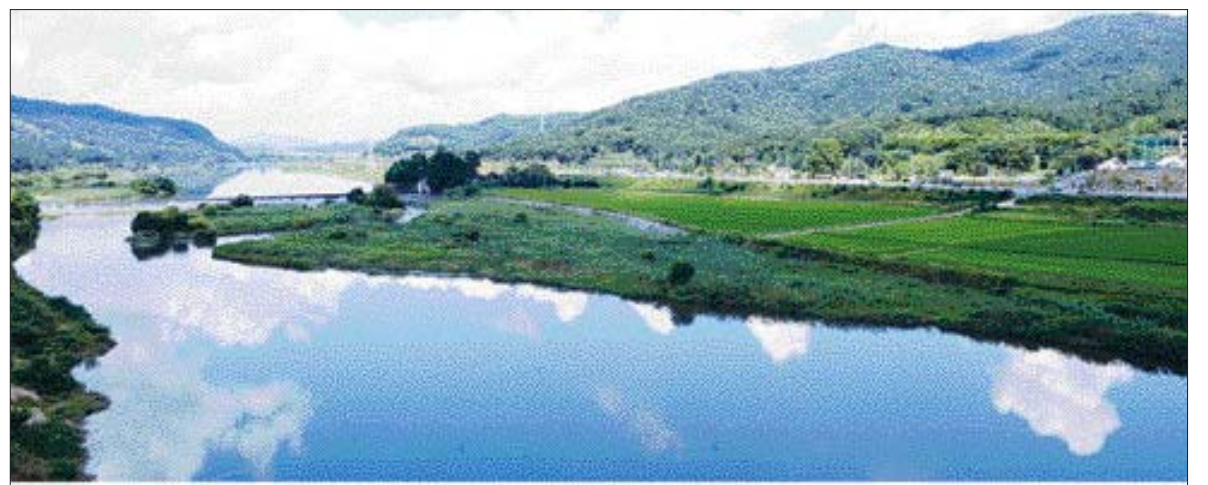
반면 수입산 쇠고기와 광우병 여파로 국내산 쇠고기는 오히려 2.7% 내렸으며 불철 수확물량이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무(-14.5%), 배추(-14.1%), 파(-3.9%), 양파(-1.4%), 마늘(-1.6%)

등 농작물 가격은 내림세를 보였다.

또 포함세였던 마른멸치·우유·식용유·콩나물 등은 7월 들어 이미 5~15% 오른데 이어 상승도료·전철료·시내버스료 등 공공요금과 보육시설 이용료·유아용품 등도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고환율정책을 통한 물가관리에 나섰지만, 수입물가가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시장의 신뢰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낮 최고기온이 34.2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내려진 29일 광주에 강한 소나기(강수량 41mm)가 내렸다. 하늘의 구름이 그대로 투영된 광산구 황룡강의 맑은 날씨와 갑작스런 소나기에 젖은 서구 광천동 기아로 모습이 대조된 하루였다. 30일 광주·전남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남일 광주시의원 제명

인·허가 비리관련 ... 성폭력 의혹 김일출의원은 부결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가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가로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남일(60·민주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관련기사 3면〉

시의회는 그러나 성폭력 연루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일출(49·서구 4)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29일 제172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로 구속된 김남일 의원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일출 의원 등 두 의원에 대해 전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의 간'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김남일 의원에 대해서는 표결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17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명이 결정됐고 다른 김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 8, 반대 5,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전날 열린 윤리

특별위원회가 이들 두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해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 부결은 전날 열린 윤리위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여성단체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폭력 연루 의혹 의원의 사퇴를 주장해 왔던 여성단체

회원 30여명이 비공개로 열린 본회의의 공개를 주장하며 회의 진행을 지연시킨 데 이어 투표가 끝난 뒤에도 투표 결과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시의회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뒤 곧바로 열린 의원 간담회를 통해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F-15K 참가 독도 방어 훈련

오늘부터 3일간

다른 나라 선박의 독도 침범에 대한 저지능력을 높이기 위한 독도방어 훈련이 30일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다고 해군이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2박3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최신 F-15K 전투기와 광개토태왕함(3천t급), 마산함(1천800t급) 등 해군 함정 6척, 해상초계기(P-3C)와 대잠헬기(윈스), 해경의 태평양7호(3천t급), 한강8호(1천t급) 등 경비정이 참가한다.

올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 훈련은 가상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를 상정해 정보 입수 단계부터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이를 퇴거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훈련은 울릉도에 있는 해군 조기경보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독도 쪽으로 향하는 국적 불명의 선박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조기경보전대가 즉시 이를 해군 1함대사령부에 통보하면, 함대 사령관은 즉각 P-3C 출동을 명령한다.

해상레이더를 장착한 P-3C는 이 선박 쪽으로 다가가 무선교신을 통해 국적과 예상 항로, 항해 목적 등을 식별하게 된다. 만약 이 선박이 교신을 거부하고 독도 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면 즉각 1함대사령부에 통보한다.

1함대사령관은 해양경찰에 이 정보를 통보하게 되고 해경은 즉각 태평양7호와 한강8호를 출동시켜 이 선박의 항해를 저지하게 된다. 이 선박이 해경정의 저지를 뚫고 독도 앞바다로 진입할 경우 F-15K와 광개토태왕함이 즉각 출동한다. /연합뉴스

미 빼앗은 쇠고기 검역

내달 초 시중 유통 가능

새 쇠고기 수입조건에 따라 4년 7개월만에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빼앗은 쇠고기가 29일 인천공항에서 간이 검사 후 경기도 이천의 보관창고로 옮겨져 현물검사를 받는 등 검역이 시작됐다.

이로써 빼앗은 쇠고기는 이르면 내달 초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갈비와 안창살 부위 등 1.47t 분량으로 컨테이너 1개와 높이 1.5m, 가로 1.8m, 세로 2.0m 박스 1개에 실려 이천시 마장면 코리아냉장에 오전 6시50분께 도착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 검역관 4명은 창고에 배치된 수의사 1명과 함께 오전 9시50분부터 컨테이너를 실은 냉장차량에서 정상수입 및 운송 여부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8월 대박이벤트!!

"황금나비를 잡아라"

“신중시바둑강화기”

“다이너스리온”

예약문의 : (080)320-7700